



# 해외양계업은 지금...

## 네덜란드

### 케이지사육 계속 허용키로

네덜란드 정부는 산란계의 케이지 사육 금지법안을 마련키로 하였으나 당초의 계획을 변경 당분간 유보키로 하였다.

동물보호법에 의해 1994년 7월 1일까지 가금류의 케이지 사육을 금지키로 한데서 기인되었으나 대외 경쟁력을 위해 생산자들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양계산업의 수출정책을 위해 연기키로 결정하였다.

앞으로 EC국가들은 현재와 같은 케이지 사육을 금지해나갈 방침이어서 닭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면적을 보장해 주도록 권장하고 있다.

## 브라질

### 콜레라 확산으로 닭고기 소비증가

브라질인들의 닭고기 소비량은 대단히 많은 편에 속해 있다. 몇개월 전부터 국내 소비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연간 1인당 12kg에서 14kg으로 높아졌다.

그 이유는 어류를 먹음으로써 콜레라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공포감이 고조되어

대신 닭고기를 소비하는데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

이 같은 닭고기 소비 증가 추세는 몇개월간 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닭고기는 어류와는 달리 콜레라에 전염될 여지가 없어 안전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 믿고 있는 데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고 있다.

## EC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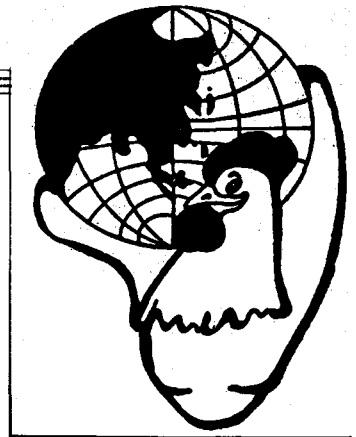
### 가금육 수출 고전

EC국가들은 가금육 생산에 있어 큰 도전 을 받고 있다. 제34차 AVEC회의가 런던에서 지난 '91년 9월에 개최되었는데 이때 발표된 바로는 소비자들 쇠고기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면서 가금육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성장을 면에서는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지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수입국들이 자국생산을 늘려 자급자족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고, 미국이 과다한 수출을 시도하여 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동유럽으로부터 수입되는 가금육에 부과금을 삭감키로 결정

# 해외양계업은 지금...



을 내렸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 CP그룹

### TV에 홍보 강화

태국의 다국적기업인 CP그룹 계열사인 육계계열화사업본부는 1976년부터 양계 계열화 사업을 착수하여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닭고기 생산에 있어 표준 모델이 되었는데 외식산업으로 시작한 버거킹은 6년만에 실패하고 KFC에 경영권을 넘겨주게 되었는데 그후 10년만에 다시 인수하였다.

이를 다시 발전시켜 체스터 패스트후드로 키워왔다. CP는 슈퍼마켓과 편의점 확장에 주력하여 왔는데 최근에는 도계품과 냉동가공 상품을 TV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오고 있는데 주로 아시아인과 유럽, 북미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 KFC

### 매장 설립 허가받아

세계에서 가장 큰 외식업체로 알려지고 있는 켄터키후라이드치킨(KFC)사는 헝가리에 식당과 부동산을 동시에 소유하게 되었다.

KFC는 7년후에 헝가리에 22개의 패스트 후드 매장을 설립키로 조인하였으며, 이를 위해 직영점 빌딩도 30개 정도 짓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KFC 1호점은 부다페스트에서 문을 열어 대중에 첫선을 보였다.

## 쿠웨이트

### 걸프전으로 양계산업 퇴보

걸프전으로 인해 닭고기 수출에 가장 큰 손실을 입고 있는 회사는 브라질인이 경영하는 사디아그룹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사디아그룹은 양돈 및 양계 계열화사업을 하여 주로 쿠웨이트에 수출을 하였는데 걸프전으로 쿠웨이트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수출이 중단된 상태이다.

사디아가 매월 쿠웨이트에 수출한 닭고기는 통닭이 800톤, 부분육이 70톤인데 이는 90만불어치로 추정하고 있다.

(자료 : World Poultry)

